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과 지청(知靑)의 도시 귀환 투쟁*

손승회**

<차 례>

1. 서론
2. 지청과 농촌문혁
3. 지청의 도시 귀환 투쟁
4. 지청과 문혁극좌파
5. 문혁파의 대응
6. 결론 : 홍위병에서 지청으로

【국문초록】

농촌으로 하방된 도시의 지식청년, 즉 지청은 문혁 전 이미 존재하였다. 극좌적인 '혈통론'에 입각하여 부당하게 하방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들 지청에게 농촌의 열악한 현실은 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毛澤東의 '換骨奪胎' 주장은 수긍하기 힘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장한 문혁과 그로 인한 사회·정치적 혼란은 이들 지청에게 다시 도시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조반 투쟁을 통해 도시로 돌아온 이들에 대해 문혁파

* 이 연구는 2016학년도 영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216-A-380235).
**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와 일반 홍위병은 '戶口兵'으로 멸시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제주의'라고 비판하였다. 반면 같은 시기 문혁파로부터 비판받고 있었던 문혁 극좌파는 생산 노동인민과의 결합을 주장하며 당시 사회의 최하층을 형성하고 있던 지청과의 결합에 주력하였다. 비록 이들 극좌파와 지청의 결합은 문혁파의 대대적인 비판 공격 속에서 붕괴되었지만 이 과정에 이루어진 또 다른 각성은 자율적 '신사조' 또는 문혁은 또 다른 흐름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키워드 : 상산하향운동, 혈통론, 문혁파, 호구병, 극좌파, 신사조, 지청

1. 서론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는 다르게 상산하향운동은 문혁 전부터 전개되었다. 1953년 시작된 운동은 1960년대 초반 劉少奇, 譚震林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도시 청년의 취업난과 진학난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 운동으로 시작되었지만, 극좌적 '혈통론'에 의해 동원 대상이 규정되고 사상개조의 이념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들 하향된 도시 지식청년[이하 知靑]이 농촌에서의 생활에 큰 만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선발 과정에서의 편파성 때문에 기인한 바 크다.[1)]

1966년 문혁의 발발은 이들에게 어떻게 다가 왔을까? "4舊 打破", "造反有理" 그리고 도시 홍위병의 "大串連"[대교류] 등 전에 볼 수 없는 사회의 대혼란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였고, 이에 따라 지청의 욕구불만이 분출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을 것이

1) 문혁 전 상산하향운동의 전개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孫承會, 「1960년대 전반 上山下鄕運動의 전개와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59, 2016. ; 定宜莊, 『中國知靑史, 初瀾(1953-1968年)』,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9 참조.

다. 이 시기 전개된 지청의 대규모 "도시 귀환 투쟁"은 그들의 지향을 잘 보여주는 집단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청의 요구와 투쟁이 毛澤東을 중심으로 한 문혁파에 의해 받아 들여져 지청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문혁파에게 문혁은 기본적으로 도시 홍위병을 주축으로 한 "黨權派·走資派 반대" 문제에 국한되어야 하지, 공장이나 농촌으로 확대되어 생산과 경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다.[2] 그렇다면 이들 지청은 어떠한 길을 택할 것인가?

한편, 도시의 급진적 조반파, 즉 극좌파 역시 문혁파로부터 비판받고 고립되기 시작하였다.[3] 혁명위원회를 통한 문혁의 '수습' 결정 이후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당내외의 문혁파와 군의 공격에 직면한 극좌파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대중과의 결합이라는 원론적 결론에 도달했는데, 도시로 귀환한 지청은 이들에게 곤경을 타개할 새로운 희망을 제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지청의 도시 회귀 투쟁과 극좌파의 결합관계 양상 그리고 문혁파의 대응을 실체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4]

---

2) 문혁 당시 제기되었던 "抓革命·促生産"이란 구호가 이를 잘 반영한다.(「抓革命·促生産, 打響春耕生産第一炮」, 『人民日報』, 1967. 2. 11.)

3) 문혁시기 극좌파의 동향에 대해서는 孫承會, 「湖南文革의 전개와 省無聯」, 『민족문화논총』 49, 2011. ; 孫承會, 「문화대혁명 극좌파 사상의 형성-湖南 省無聯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3. ; 孫承會, 「문화대혁명의 이단자들-廣東 극좌파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20, 2013. ; 孫承會, 「문화대혁명과 武漢 극좌파」, 『중국학보』 73, 2015. 참조.

4)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中津俊樹의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문혁을 전후한 지청의 구체적 실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극좌파 홍위병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中津俊樹, 「中國文化大革命における『極左派』紅衛兵と知識青年運動-「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との關わりに見る"下からの社會再編の試み"-」, 『國際文化研究』 第5號, 東北大學國際文化學會, 1998.) 또한 土屋昌明은 대기근시기, 문혁초기, 1968년 이후의 상산하향시기를 구분하여 각 시기 농촌의 현실과 下放이 知青에게 미친

2. 지청과 농촌문혁

하향 이후의 고통스런 생활 속에서 혁명의 이상과 농촌의 현실 사이에서 깊은 고민과 회의에 빠져 있던 지청에게 문혁 발발 소식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먼저 한 지청의 죽음을 통해 그의 문혁 참가 동인과 참가 이후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국민당 간부 출신의 외할아버지를 둔 王百明은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동안 계속 대학에 불합격한 후, 1964년 湖南 江永縣으로 하향되었다. 그는 1966년 이후 각종 집회와 토론 참가, 대자보 작성 등을 통해 문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1967년 8월 그는 江永縣 부근 道縣에서 '黑五類' 자녀에 대한 학살이 전개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곳으로 달려가 반대 투쟁을 벌이다 현지 농민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그는 생전에 지청생활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일기를 남겼는데 그 일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이번에 다시 그들이 나를 輕騎隊[5]에 부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정 때문이었다: 내가 기왕의 1년 동안 가정출신의 영향을 이 정도까지 없앨 수 있었으니 다시 3년, 5년이 지나면 더운 땀으로 나의 영혼과 죄과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 것이다."
>
> "가정이란 부담은 여전히 큰 문제이다. … 역사가 너에게 정해 놓은 것은 매우 나쁠 수 있으나 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만약 다

영향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그들이 공산당의 주류 이데올로기에 대해 회의하고 반대하여 가는 과정을 검토하였다.(土屋昌明, 「下放の思想史-大飢饉・文革・上山下鄉の農村と知識青年-」, 土屋昌明・「中國60年代と世界」研究會[編], 『文化大革命を問い直す』, 東京: 勉誠出版, 2016.)

5) 輕騎隊란 본래 소련 공산주의청년단조직이 공장 내에 설치한 '청년 방범초소'에서 유래했는데 소련 유학생이 중국 내로 들여왔다. 1930년대 초 중앙 소비에트 수도 瑞金에서 출간한 『青年實話』 내에 비평 전란의 제목 역시 「輕騎隊」였다.(宋金壽, 「延安整風前後的『輕騎隊』墻報」, 『新文學史料』, 2000-3, p. 35.)

른 사람들과 미래 그리고 정치신분을 비교한다면 너는 단지 평생 고뇌만 하게 될 것이다."

"이후 노래를 부를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모든 공공장소에서 외국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스스로 외국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

"책을 볼 때, 특히 이론서를 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하라. 차라리 밤에 늦게 자서 몇 년 수명을 단축하는 게 낫다! 꼭 기억하라, 꼭 기억하라."

"사람들 앞에서 독서를 고취하지 말고, 고상한 말을 삼가며 국제정세나 문화, 과학, 예술방면의 어떤 것도 공개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라. 단지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노동 점수를 따는 것만 이야기하라."

"사람들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책을 읽지 말며, 밖에 농업서와 『毛澤東選集』 이외의 어떤 책도 내놓지 말라"

"이후 등유를 사지 않겠다고 선포했다. 몇 개월 동안 어둠 속에서 더듬다 보면 캄캄해도 글을 쓸 수 있다. 이것이 네가 택할 유일한 길이다."

"농민과 교제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 대중과 동떨어진 자세를 취하지 말고 단지 생산, 학습, 시사만 이야기하며 그들과 생활, 날씨, 먹고 마시는 것, 촌의 일상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한다. 고금의 일을 이야기 할 때 태도는 부드러워야 하며 고상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활동을 많이 하고 독서를 많이 하되 말은 적게 하라. 이것이 너의 이후 행위의 준칙이다."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하라. 어떤 이는 3년이면 승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곳에서 평생을 지낼 것으로 운명 지어져 있다. 따라서 일체의 것은 모두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야 하니, 자신을 흙 속에 깊이 파묻어야 한다."

이상은 모두 王百明의 친척인 鄭文斗가 발췌한 그의 일기 가운데 일부이다.[6] '흑오류' 출신 지청이 농촌에서 겪어야 했던 심적·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가 문혁이 시작되기

6) 鄭文斗, 「王百明罹難四十周年祭」, 鄧鵬 主編, 『無聲的群落(續編)-文革前上山下鄉老知青回憶錄』 上·下卷, 重慶: 重慶出版社, 2006(이하, 『無聲的群落(續編)』), pp. 348-350 참조.

전인 1964년에 하향되었음을 고려할 때 농민과의 관계, 가정 출신 문제, 사상적 금기 등 지청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당시에 이미 지극히 엄중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혁 전까지 그는 하향운동과 노동개조를 통한 "換骨奪胎"라는 당의 방침에 매우 충실하게 따르고자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의 일기 가운데에는 낙후한 농촌의 모습과 毛澤東의 저작에 대한 비판의 경향이 등장하며 부르주아계급의 정서를 감추고 있었다. 특히 그는 투르기니에프에 심취하여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아 지청 생활 중 『정치경제학』, 『유물주의와 경험비판주의』, 『기원론』, 『미학원리』 등과 함께 다양한 문학작품을 섭렵하였다.

문혁 발발 이후 신중하고 소심했던 그는 돌연 태도를 바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의 이러한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먼저, 문혁이 그에게 이상의 실현 또는 불만의 배출구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들 세대는 오랫동안 혁명영웅주의와 투쟁철학의 영향 아래 성장하면서 『紅巖』[7], 『劉胡蘭』[8],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9] 등의 작품을 반복적으로 읽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문혁이 시작되자 지청들 대부분은 이들 영웅을 모델로 하여 그들과 동일시했는데 이상적이며 시인 기질이 농후했던 王百明 역시 이러한 길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다른 설명 방식은 그가 문혁을 또 다른 "換骨奪胎"의 기

---

7) 羅廣斌, 楊益言의 장편소설. 1948년 국공내전을 배경으로 공산당원의 혁명적 투쟁을 내용으로 한 고전적 혁명 작품. 1961년 출판 이래 98차에 걸쳐 재판되어 1천 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8) 劉胡蘭(1932-1947)은 山西省 출신의 저명한 항일유격대원이자 혁명열사이다. 소년 영웅으로 알려졌으며 국공내전 중에 살해당했다.

9) 니콜라이 오스뜨로프스키의 자전적 소설. 주인공 빠벨이 봉건시대와 사회주의 혁명시대를 거치면서 노동의 참다운 의미를 찾고 사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 구체적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묘사되었다.(김규종 옮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열린책들, 2000.)

회로 삼았다는 것이다. 그는 毛澤東의 지시에 호응하여 문혁이 사회주의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며, 자신의 비참한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로 파악할 수 있었다.[10] 하지만 그를 비롯한 대부분 지청이 문혁에 참가한 데에는 위의 두 가지 동인 모두가 작용했을 것이다.

1957년 우파로 지목된 어머니가 암으로 죽음을 앞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채 사회주의의 '賤民'에서 '平民'이 되기 위해 지청생활에 나섰던 施明이 문혁에 그처럼 몰두했던 것도 그의 혈통 문제가 개입되어 있었다. 더욱이 그는 문혁 발발 이후 조반파의 혁명 활동에 투신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몰두한 나머지 계급의 적을 타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개인적 보복을 자행하기도 하였다.[11]

한편, 홍위병의 "大串連"[대교류]은 도시의 문혁을 농촌으로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에 큰 영향을 받은 지청은 다양한 형태의 농촌 문혁을 전개하였다. 기존 권력기구에 대한 비판과 공격, "奪權"이 도시에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예컨대, 도시에서 문혁과 접한 重慶 지청 馬朋과 范根紅은 通江縣으로 돌아와 '1079전투단'을 조직, 「告全縣上山下鄉知識青年同胞書」를 선포하고 이어 1967년 3월 12일 현성에서 전성 지청대회를 개최하였다. 목적은 公社가 운영하는 林場에 대한 造反이고 이를 통해 重慶으로 귀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들의 조직명과 관련하여 '1'은 노동할 때 사용하는 '멜대'를, '0'은 '광주리'를, '7'은 '호미'를, '9'는 '똥바가지'를 각각 의미하였다. 그들 지청의 조반 조직 명칭까지 험난한 농촌생활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2대회'가 공안국의 방해로 실패하자 通江縣 지청은 다시 '6·12대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 총기 탈취가 이루어지고 이어

10) 鄭文斗, 「王百明罹難四十周年祭」, 『無聲的群落(續編)』, pp. 350-351.
11) 施明, 「寃蘗」, 『無聲的群落(續編)』, pp. 162-165.

平昌 조반파와의 무장투쟁도 전개되었다.[12]

문혁 이후 지청의 생활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청은 더 이상 이전의 소심하고 조심스런 농촌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도처에서 날뛰었고 일부 지청은 기회를 틈타 몰래 중경으로 돌아갔다. 이후 돌아와 그곳의 혼란을 (농촌의) 大巴山으로 유입시켰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서슬이 푸른 칼을 지녔고 또 다른 이는 어디에서 가져온 지도 모르는 총 케이스를 몸에 두르고 무력시위를 하였다." 이는 중경 지청이 보여준 만행의 일부였는데 그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당시 "피를 뽑다"(放血)는 표현이 지청의 대명사가 되었다. 우는 아이도 지청의 "放血"을 말하면 그 울음을 그칠 정도였다.[13]

하지만 농촌에서의 문혁만으론 지청에게 절실한 출신문제나 호구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다. 태생적 신분 혹은 하향 명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고향인 도시로 돌아가 개인의 檔案과 戶口에 대한 조반 투쟁을 전개해야 했다.

3. 지청의 도시 귀환 투쟁

지청 가운데 정상적인 복귀는 招生, 徵兵, 招工, 提幹 등의 사유 이외에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1966년 하반기부터 문혁의 열기가 크게 진작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전국적으로 "橫掃", "炮轟", "砸爛"의 풍조가 널리 퍼졌다. 또한 앞서 지적하였듯이 문혁 초기 홍위병의 '대교류'를 접한 지청은 이에 크게 고무되었다. 예컨대, 四川 南江縣에 도착한 홍위병은 "천하는 우리들의

12) 謝克慶,「巴山情未了-大巴山的火塘及其他-」,『無聲的群落(續編)』, pp. 630-637.
13) 谷繼文,「重慶知青在四川通江」,『無聲的群落(續編)』, p. 818.

천하이고 국가는 우리들의 국가이다.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고 선포하였다. 이 선언을 들은 지청들은 흥분했다. 하지만 그들은 시대가 방기한 특수한 집단이었다. 그들은 홍위병에 참가할 수 있는 학생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정치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는 빈·하·중농도 아니었다. 게다가 公社는 문혁 이후 지청이 단지 생산대에서 재교육을 받으며 노동에 종사해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이렇게 농촌호적 가운데의 別冊에 분류된 재교육 대상으로서 혁명에 참가할 권리가 없었던 그들이 택한 길은 "고향(도시)으로 돌아가자!"였다.[14]

문혁의 혼란 속에서 원래 계획된 하향이 중단된 것은 물론 위에 보이듯 이전 농촌에 하향되었던 지청 역시 다수 도시로 돌아와 조반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15] 북경은 그들 지청의 항의 중심이었다. 당시 북경에 머물던 지청은 40만 명에 이르렀고 그들에 의해 중앙의 하향 담당 중앙소조는 공격을 받아 공개적인 사무실 운영이 불가능할 지경에 이르렀다.[16]

구체적으로 中央安置城市下鄉青年領導小組辦公室이 국무원에 한 1967년 6월 29일 보고에 따르면, 5월 이후 6월 말까지 40만 이상의 지청이 북경으로 들어왔고 신강 지청을 선두로 한 700명이 7월 3일 中南海로 몰려 와 '구체적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 하였다. 또한 사천, 호남 내에서 홍위병과의 '대교류'를 벌이고 있는

14) 何隆華, 「南江紀事」, 『無聲的群落(續編)』, p. 206.

15) 1966년에는 본래 67만 명의 하향이 계획되었지만 1-8월까지 36만에 그쳤고 이후 지청의 조반운동으로 인해 상산하향운동은 중지되었다.(顧洪章, 馬克森,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北京: 中國檢察出版社, 1996 (이하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p. 66.)

16) 이하 전국적인 상산하향운동의 동향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기하지 않는 한 「上山下鄉文獻及大事記(1967-77年)」(http://www.wengewang.org/read.php?tid=5268&fpage=94, 검색일 2016년 7월 20일 16시)과 위에 소개한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참조.

지청은 조직을 결성하여 7월 북경으로 상경하였고 廣西의 지청 조직은 상경하여 譚震林에 대한 조반을 전개하였다.[17]

이 때 지청이 제기하는 '구체적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당시 당국으로부터 지목되었던 '경제주의 영향'과 지청의 '하향 반대' 등의 주장과 관련시켜 본다면, 도시의 호구 문제 또는 학교 진학 또는 복교 문제, 그리고 도시에서의 취업 문제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청은 단순한 경제적 투쟁에 머물지 않고 문혁파의 정치적 중심인 중남해에서 시위를 벌이고 譚震林에 대해 조반을 일으키는 등의 정치적 투쟁을 함께 진행하였다. 도시 귀환 지청이 譚震林을 특히 지목하여 반대한 이유는 부총리로서 하향작업을 주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는 1966년 3월 23일부터 4월 7일까지 개최된 하향 관련 좌담회에서 1962-65년까지의 상산하향이 정상적이며 순조롭게 추진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것이 3가지의 차별을 극복할 혁명적 의의를 지녔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18] 그런데 문혁 전의 하향은 이후와 마찬가지로 모택동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譚震林이나 劉少奇에게 그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었다.[19] 하지만 지청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들을 조반 대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

17)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pp. 71-72.

18)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pp. 63-64.

19) 상산하향운동을 劉少奇, 譚震林의 책임으로 비판한 대표적인 문건이 장사 지청 조반조직 '反迫害'의 조직원 張揚이 1967년 10월 발표한 3.6만 자의 장문 「上山下鄉運動是對毛主席"青年運動的方向"的徹底背反」이다.(「長沙市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長沙文史』(知識青年上山下鄉史料專輯), 2003. 10, p. 294.) 이에 대해 주은래는 하향운동이 모택동에 의해 주창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들의 귀향을 촉구하였다.(周恩來, 「周恩來接見廣州各派代表的講話」(1967. 11. 14), Song Yongyi,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Published by Universities Service Centre for China Studies, 2010(Third Edition))(이하 CCRD) 수록, 참조.)

기는 힘들다. 오히려 문혁 발발 이후 그들에 대한 공공연한 조반이 이루어진 상황에 편승하여 지청은 둘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책략'으로 활용하거나 그 배후의 정책 추진자였던 모택동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20] 그렇다면 문혁으로 촉발된 새로운 지청운동이 문혁파의 지향과는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었다.

신강에서 올라온 700명의 지청은 1966년 7월 3일 中南海 정문에 연좌하여 하향 문제 해결을 위한 周恩來와의 접견을 요구하였다. 호남 지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같은 시기 호남 장사, 衡陽, 郴州, 黔陽 등지의 20여 명 하향 담당 간부들은 지청의 하향공작이 지니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①지난 5년 동안 성 전체에 6만 여명의 도시 지청이 하향했는데 그 가운데 과거 착취계급 가정(='흑오류') 출신이 70%를 차지한다. ②농촌생산대(=插隊)에 편입된 지청 가운데 70%가 자급생활을 할 수 없다. ③문혁 이후 70%의 지청이 장기간 도시에 머물며 식량, 의료, 호구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요구한다. ④농촌에 머물고 있는 하향 청년 역시 대부분 불안해하며 그 가운데 60-70%가 노동에 참가하지 않는다. ⑤일부 빈·하·중농은 다음과 같이 욕한다. "당신들 지청은 밥만 먹고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혁명을 계승하겠느냐? 노동하지 않는다면 단지 지주 노릇만 계승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은 과거 수탈을 통해 먹고 살았고 현재 역시 우리에게 부양하라고 하니 우리는 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일부 社隊는 하향 지청에게 도시로 돌아갈 것을 요구한다.[21] 이상은 담당 관리자의 입장을 반영

---

20) 廣州 '紅旗派'에 가담한 지청의 정치적 활동을 평가하면서 劉國凱는 그들에 대한 下鄕 '黑指示'가 毛澤東에 의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부득이하게 劉少奇, 陶鑄 등 黨權派에 의한 것으로 했음에 대해 지적하였다.(劉國凱, 「論人民文革」, 『人民文革論』, 香港: 博大出版社, 2006. pp. 148-149.)

21) 이상, 호남 지청의 상황에 대해 소개는 『中國上山下鄕運動始末』, pp. 90-

한 것인데 그만큼 당시 지청의 현실이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③문혁 이후 70%의 지청이 장기간 도시에 머물며 식량, 의료, 호구 그리고 일자리 마련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지청에게 문혁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과연 실제 문혁시기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청 개인의 경험을 통해 그들의 도시 귀환 투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문혁 소식을 전해들은 李忠公 등 隣水縣 林場의 지청들은 힘든 육체노동의 시기가 끝나고 새로운 혁명과 조반의 시대가 열렸음을 직감했다. 지청들은 우선 重慶知青造反兵團을 조직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혁명을 일으키자"["回老家·鬧革命"]고 하였다. 중경에 도착한 이들 지청은 大竹縣 지청과 결합하여 社辦場의 8대 죄상을 정리하고 "社辦場 파괴"의 구호를 제출하면서 도시에서의 급여 제공과 직업 배분을 요구하였다.

이상, 그들의 요구는 정치적이라기보다 다분히 경제적 요구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돌아온 답변은 "현지에서 혁명에 매진하고 생산을 촉진하라"는 것이었다. 지청으로선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도시로 돌아가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출신문제 또는 당안문제의 해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李忠公 등은 비록 실패했지만 縣 安置辦公室로 몰려가 자신들의 檔案資料, 즉 '黑材料'를 탈취하려 하였다. 1966년 말부터 2달 여 동안 진행된 隣水縣 지청의

---

91 참조. 이밖에도 다음을 지적하였다. ①신문과 잡지 등의 선전이 효과적이지 못했고 사회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②각급 배치 공작 간부와 도시 구역 간부는 항상 포위공격을 당하거나 구타당하고 모욕당했다, ③각급 유관 간부 누구도 의복, 식량, 주거, 생활, 혼인, 병사 등에 관여하지 않아 모두 배치사무실을 찾는다, ③중앙의 『통지』 규정에 따르면 "배치공작 가운데의 문제는 마땅히 각급 당위원회가 책임지고 점진적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현지 많은 지구의 '3결합'은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명령을 내리는 자가 없다. 많은 지도간부는 속수무책으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투쟁은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해산 때 투쟁을 지도했던 李忠公의 다음 발언은 이들 지청의 격분을 대변하였다.[22]

> 동지들 우리 지청은 무엇을 위해 조반하였습니까? 다름 아니라 출로를 찾고자 했던 것으로 간단히 말하면 마땅히 직업을 얻어 농민이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우리는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거주 이전의 자유 그리고 결사·언론자유가 있습니다. 이들 원리와 자유는 우리에게는 일찍이 사치스런 소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상산하향의 개시 이래 우리의 이들 권리는 모두 박탈당했습니다. 우리가 왜 고등학교에 낙방하고 대학에 떨어졌습니까? 성적이 나빠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표현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단지 우리 가정의 성분이 좋지 않아서입니다.

이들 지청 조반단의 해산 이유는 周恩來의 지시와 일반 노동자 조반파와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도시귀환 투쟁을 통해 신중국 성립 이후의 사회·정치의 모순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들의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였다. 하지만 노동자 조반운동과 함께 하지 못한 '秀才 조반파'였던 李忠公이 兵團 탈퇴 이후 문혁 逍遙派로 변모했다는 사실은 지청운동의 현실적 한계와 함께 문혁시기 지청 혹은 조반파가 보여주는 하나의 저항 양식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청 생활 중 기회가 되면 서적을 구해 읽었던 사천 萬源縣 지청 鄒克純의 경우 금서에 심취했으며 그 역시 문혁 이후의 造反派나 보수파 모두와 거리를 둔 소요파가 되었다. 물론 그렇다고 그가 생산대의 노동에 만족한 것도 아니었다.[23]

이러한 지청의 모습은 1967년 조반에 의한 도시 귀환의 꿈[返城夢]이 깨진 뒤 바로 하향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重慶에 남아 1년

---

22) 李忠公, 「天路迷茫」, 『無聲的群落(續編)』, p. 23.
23) 그의 지청 경험은 鄒克純 「冬夜的山路」, 『無聲的群落(續編)』, pp. 56-58 참조.

반 동안 생활했던 지청 宋曉濤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파로 지목된 가족을 두었던 그는 1964년 진학이 좌절되고 당시 유일한 선택이었던 지청이 되었다. 그 자신 비록 적극적으로 도시 회귀 투쟁을 전개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의 자살과 조반과정에서 발견한 문건을 통해 자신들의 하향이 당국의 도시인구 감소 정책의 결과였음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그 좌절감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었다.

> 당시 우리들의 상산하향에 동원하기 위해 여론기관은 동일한 목소리로 외쳤다. "지역패권주자를 점령하라", "제국주의와 수정주의에 반대한다", "혁명의 계승자가 되어라", "이상을 실천하라", "차별을 축소하라", "지식인은 하향하라" …… 그러나 진실된 정황은 이러했다. 1960년대 초 '대약진'의 실패와 국제적인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아 국내 생산력은 정체되고 재정은 긴박해졌다. 더구나 인구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교육기관은 부족해 많은 청소년은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진학할 수 없었다. 산업구조 또한 불합리하여 도시인구의 취업이 갈수록 좁아졌다. 과도한 실업인구는 엄중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시인구와 상품·식량 소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야 했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대중을 동원하여 하향시키는 것이다. 국가는 일찍이 대규모의 초·중·고등학교 졸업생을 농촌으로 인도하여 생산에 종사시킨다는 명확한 방침을 지녔고 도시의 잉여노동력 문제 해결을 농촌의 낙후 개선 그리고 변강, 산지 개발과 결합시켰다. 이와 같은 국가발전 사업에 대해 크게 비난할 바는 아니며 낙후된 지방에도 분명히 건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고통의 땅으로 갈 주체 건설자는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선발되느냐, 하는 것이다. 도시인구 감원의 원칙은 무엇인가? 국가의 당권자가 사용한 주요한 척도는 唯成分論이었다! 바로 이 기준에 따라 우리를 자신과 다른 존재로 보고 도시의 호구를 박탈해 버렸다.[24]

---

24) 宋曉濤, 「笑談非情歲月」, 『無聲的群落(續編)』, p. 88.

사실 宋曉濤은 1967년 1월 22일 당 중앙을 대표한 주은래가 촉구한 "老家로 돌아가 철저히 혁명을 수행하자"[25]에 등장하는 '老家'를 일반적인 지청과 다르게 해석하였다. 周恩來는 당연히 그것을 원래 농촌 插隊나 농장을 가리켰고 宋曉濤 역시 그렇게 이해했다. 하지만 주변의 지청들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 호구를 만드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렇듯 "우리의 호구를 돌려 달라", "우리의 청춘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는 일반 지청보다 훨씬 온건했던 그였지만 인구 조절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크게 실망하고 조반에 적극 참여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문혁파와 군의 탄압으로 그것이 좌절하자 그는 다시 혁명에 나설 의욕을 상실하고 소요파가 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당으로부터 신임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나 진보에의 열정이 사라졌고 노동을 통해 혁명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신념도 없었다.[26]

또 다른 도시 귀환 투쟁의 사례를 살펴보자. 1967년은 문혁의 고조기였다. 전국적인 '탈권' 투쟁 전개 속에서 각지의 지청은 크게 자극받았다. 멀리 귀주 安順縣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 혁명조반파총지휘부는 현위원회와 현정부를 장악하고 현 전체 권력을 탈취하였다. 지청 黃鶴生이 소속된 白壇公社 역시 이 기회를 이용하여 知青造反兵團을 조직, 安順縣城鎭下鄕知識青年安置辦公室에 대한 '탈권'을 진행하였다. 이때 1964년, 1965년 하향된 지청 총 127명이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은 연석회의를 통해 자신들과 같은 '흑오류'의 자녀나 '狗崽子'[개자식]들은 호구 문제를 해결하여 농촌을 떠나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安置辦公室의 간부와 그들의 공문을 사칭하여 공사로부터 戶口遷移證까지 획득한 지청들은 安順

25) 周恩來, 「周恩來陳伯達在外地來京群衆有線廣播大會上的講話」(1967. 1. 22), CCRD 수록, 참조.

26) 이상, 지청 宋曉濤의 문혁 전후 경험에 대해서는 「笑談非情歲月」, 『無聲的群落(續編)』, pp. 77-93 참조.

을 향해 출발했지만 뒤 따라온 공사의 무장민병에 체포되어 반성 투쟁은 실패로 끝났고 말았다.[27]

호남 장사의 譚世通은 '역사문제'를 지닌 부모를 지닌 이유로 호남성 桂陽縣 樟市 인민공사로 하향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자청한 것이지만 1963년 이후 더욱 강해지는 극좌적 분위기에서 부모의 예상되는 고통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다. 문혁의 발발은 그의 인민공사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생산이 마피되자 혼란 중에 불가피하게 모두 長沙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장사에는 각종 조반조직에 의해 수많은 사령부가 건립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청은 혁명조반조직을 건립하여 劉少奇를 공격하였다. 이들 지청은 상산하향을 유소기의 수정주의노선의 산물로 파악하여 유소기를 공격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상 호구 쟁취를 위한 조반이었다. 하지만 譚世通은 도시 호구를 획득하겠다는 지청의 주장이 비록 그것이 농촌에서의 고된 노동과 기아 때문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해될 수 있지만 그것이 모택동의 호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다른 지방에서 돌아온 지청들과는 달리 그와 동료들은 逍遙派를 이뤄 조반활동을 관망하였다.[28]

사천 重慶 大巴山 萬源縣 草坝區 新店公社 青山茶場에 하향한 鄧鵬은 문혁이 발발하자 대자보를 집필하는 등 조반에 적극 참여하였다. 하지만 達縣地委가 파견한 공작조에 의해 집중적인 탄압을 받게 되어 '반당·반사회주의자'라는 죄명을 얻게 되었다. 1967년 '2월 鎭反' 이후 茶場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자 다른 지청들과 함께 중경으로 돌아온 鄧鵬은 하향 기간 동안 접하지 못했던 학구열을 채우기 위해 독서에 열중하였다. 그 때 그가 접한 문학 서적들은 홍위병의 '탈권' 투쟁 때 도서관에서 유실된 것이었

27) 黃鶴生,「弄巧成拙遷戶口」,『無聲的群落(續編)』, pp. 59-63 참조.
28) 譚世通,「上山下鄉四部曲」,『無聲的群落(續編)』, pp. 451-455.

다. 그 가운데에는 러시아의 벨린스키, 고굴리, 푸시킨, 체르니셰브스키, 투르게니프,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고르키, 솔로코프 프랑스의 발자크, 모파상, 위고, 졸라, 미국의 잭 런던, 호쏜, 휘트먼, 드레이서, 영국의 섹스피어, 스위프트, 하디, 디킨스, 바이런, 셸리 등 서양 작가 이외에 唐詩, 宋詞, 『古文觀止』 및 魯迅, 矛盾, 曹禺, 巴金 등의 수많은 중국 작품이 포함되었다. 소설과 시는 물론 사회주의, 낭만주의, 초현실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 등 다양한 사조의 작품가 포함되어 있었고 동서양의 고전까지 망라되어 당시 그의 독서열이 어땠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그들 도시로 돌아온 지청들은 헝가리 애국 시인의 이름을 딴 페토피클럽이라는 독서회를 조직하였다. 이들 또한 도시 도처에서 무장투쟁이 진행되는 와중에 독서에 열중하며 일종의 소요파를 형성하였다.[29]

이상, 문혁 시기 지청의 경험에서 주목할 한 것은 ①도시 회귀, ②조반파 조직, ③劉少奇 공격, ④소요파의 형성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치적 지향을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도시 호구를 다시 획득하기 위해 조반운동에 참여했다는 점은 공통적이었다. 호구를 향한 여성지청의 바램은 다음의 회고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 호구라는 무형의 족쇄가 우리 각자의 운명을 통제하고 지휘하고 또 장악하였다. 왜곡된 결혼, 불행한 결혼, 애정 없는 결혼이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호구를 얻기 위해 싼 값에 자신들의 청춘을 팔았고 매우 많은 여성 지청들에게는 혼담이 오가는 남자 쪽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지 상대방이 자신의 호구를 농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면 그만이었다.[30]

---

29) 이상, 鄧鵬 「我的讀書夢」, 『無聲的群落(續編)』, pp. 695-699 참조. 이후 그는 1978년 사천성 대학입학고사에서 문과 수석이 되어 사천의과대학에 합격하였다.

30) 唐思齊, 「刻骨銘心的歲月」, 『無聲的群落(續編)』, p. 481.

이러한 소망은 여성 지청뿐만 아니라 남성 지청에게도 마찬가지로 절실했다. 그렇기에 앞서 서술하였듯이 그들은 문혁이 발발하자 현장에서의 비판투쟁과 조반을 거쳐 문혁 혼란을 틈탄 도시의 진출 그리고 도시 호구를 획득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던 것이다.

지청은 당연히 농촌의 호구를 지녔다. 하지만 그들이 도시로 돌아온 이상, 합법적 신분으로 단위에 소속되어 생존하기 위해서는 도시 호구의 획득은 필수적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최근까지 중국에서는 "戶口人格化"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호구란 개인의 존재가치의 중요한 기준이었다. 호구는 크게 도시호구와 농촌호구로 대별되지만 세부적으로는 山區山上農村戶口, 河邊平埧農村戶口, 鄕場非農業戶口, 區鎭非農業戶口, 縣城戶口, 地區戶口, 大城市郊區糧農戶口, 菜農戶口, 郊區城市戶口, 大城市市中區戶口 등 9等 18級의 구분이 있었다. 이 가운데 혼인, 취업, 진학, 경제·문화생활 등에서 가장 높이 평가받는 등급은 大城市市中區戶口이고 낮은 것은 山區山上農村戶口였으니 후자에 소속된 지청이 과거 자신의 고향이었던 전자로 돌아가고자 했음은 자연스러웠다.[31]

貴州 安順縣으로 하향된 王安生 등은 문혁 이후 조반을 일으키고 도시로 돌아와 호구를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은 그 요구를 거절했고 도시에 머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부모 소재 단위와 街道의 居民委員會가 그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그들은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고 가명을 쓰고 잡역 노동에 종사했다.[32] 사실 도시 내에서 호구도 없고 배급도 없으며 직업도 없이 '黑人'으로 생활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게다가 단위와 거민위원회 및 주위의 각종 압력에 버티는 것도 쉽지 않았다.[33]

---

31) 何隆華,「南江紀事」,『無聲的群落(續編)』, p. 207.

32) 王安生,「歲月痕」,『無聲的群落(續編)』, p. 166.

33) 黃歐平,「歷練痛苦」,『無聲的群落(續編)』, pp. 281-283. 1969년 초 당국의 재하방 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로 고향으로 돌아와 3년의 '黑人' 생활

그런데 그와 같이 문혁과 함께 자발적으로 도시로 회귀한 경우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다. 문혁 전개의 와중에서 각지에서는 광범한 무장투쟁이 전개되었다. 북경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혈통론'이 비판을 받고 소위 '노홍위병'이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1967년 8월 농촌에서 여전히 '혈통론'에 기반 한 문혁운동이 기세를 떨치고 있었다. 호남 농촌의 경우 1967년 8월 13일 道縣을 중심으로 '흑오류' 및 그들의 자제에 대한 폭력적 공격[34]이 발생하여 10월 17일까지 살인사건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은 주변 10여 지역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였고 특히 '흑오류'가 집중적으로 하향된 江永과 零陵 등지의 지청 6천 여 명은 지방 무장민병의 공격을 피해 집단적으로 長沙로 회귀하였다.[35]

徐孝淸은 1964년 사천 昭覺縣으로 자발적으로 하향하였다. 사천대학 중문과 4학년을 다니다 병으로 휴학 중이었던 그녀는 노동자·농민과의 결합을 강조하는 지시와 선배 지청의 혁명적 사적에 감동을 받아 주체적으로 하향운동에 참가하였다. 주위의 지청과 달리 교양 지식수준이 높았던 그녀가 지청 삽대 조장을 맡은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사원과 지청들 사이의 불통과 몰이해 그리고 모함 때문에 고립된 지도자가 되고 말았다. 문혁이 시작되자 모순은 한 번에 폭발하고 말았고 그녀는 곧 대중의 주요 공격대상이 되었다. "주자파의 어용 도구", "지주계급의 효자현손", "엄중한 자산계급 개인주의" 등으로 비판을 받았고 비평대회에서 수모를

을 버텼지만 결국 다시 자신의 호구 소재지로 하향하였다.

34) 이 사건에 대해서는 謝承年, 「湖南道縣"文革"殺人大案揭秘」, 『上海法治報』, 2010. 12. 24(http://www.difangwenge.org/read.php?tid=8127 다운로드 2013. 7. 1. 14시.)

35) 이 사건의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羅丹, 「1967, 長沙六千知青大逃亡始末」, 『報刊薈萃』, 2010. 8 참조. 이에 따르면 이들 지역 지청 가운데 '흑오류' 자제는 85%에 이르렀다.

당했다.[36] 그녀의 도시 회귀는 어쩌면 불가피했는지도 모른다.[37]

귀향하여 호구를 위한 조반에 참여한 이들 지청에 대해 도시홍위병은 대부분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戶口兵'이라는 멸칭이 그것이다. 원래 "호구부는 집안의 귀중품처럼 캐비넷 서랍에 갇힌 이후부터 거기에 성명이 등기된 사람은 마치 주목을 끌지 못하는 책과 같이 그것이 규정한 공간 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싫든 갇힐 수밖에 없었다." "특히 그 윗면에 기록된 가정 성분란은 더욱 중요하여 부주의하게 함부로 써 넣을 수 없었다."[38]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그를 근거해 모든 것이 규정되었기 때문이었다. 지청들은 상산하향을 통해 부모의 호구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했으나 힘든 농촌의 생활로 인해 다시 이 호구의 중요성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도시 유력 조반파 조직에 지청이 적극적으로 가입하려 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1967년 여름 호남 장사에는 조반파의 세력이 매우 컸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각지에서 장사로 돌아온 지청들이 이들 조반파 조직에 적극 가담하여 활동하였다는 사실도 크게 작용하였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湘江風雷 知靑支隊・直屬支隊, 紅一線・知靑造反團 등과 같은 조반 조직이 있다.[39] 이들 귀환 지청들

---

36) 徐孝淸, 「從大學生到農民」, 『無聲的群落(續編)』, pp. 239-245.

37) 하지만 도시로의 귀향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시의 극좌적 분위기에서 농촌을 떠나 임의로 떠나 귀향한다는 것은 계급적 정치적 표현으로 볼 때 용납될 수 없었다. 게다가 경제적 현실적 조건도 귀향을 가로막았다. 예컨대 1964년 사천의 成都로부터 西昌專區 會理縣까지 거리는 750Km로 버스로 4일이 걸렸고 그 비용은 36원이었다. 이 금액은 당시 지청의 5개월 노동에 대한 임금에 해당하였다.(劉天立, 「回家」, 『無聲的群落(續編)』, p. 512.)

38) 李忠公, 「曾經,我們都是"戶口兵"」, 『無聲的群落(續編)』, p. 542.

39) 한편, 劉國凱는 광주 조반파 조직 '紅旗派'와 보수파 조직 '東風派'의 갈등을 검토하면서 '홍기파' 내부에 다수의 支靑이 포함되었고 그들의 가입 목적이 조반을 이용한 도시 귀환과 취업에 있음에 주목하였다. 여기서 支靑이란 문혁 전 하향된 支農靑年을 가리킨다.(劉國凱, 『廣州紅旗派的興

은 연합하여 "우리는 호구를 요구한다! 우리들은 생존을 요구한다! 우리들은 도시로의 귀환을 요구한다!"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수천 명이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 조반파 가운데 지청 王時燕을 포함한 일부는 장사 南區 공안분국을 포위하고 도시 호구에 자신들을 등재하라고 요구하였다. 왕시연 역시 여기에 참가하여 가족 주민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고 몇 달치의 糧票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조반파의 세력 약화는 곧 그들의 호구 상실로 귀결되었다. 이후 다양한 방식의 선전과 청원을 했고 북경까지 찾아가 중앙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1960년대 초 상산하향공작을 담당했던 호남성위 비서장 楊第甫를 심문한 결과 그들은 단지 하향운동이 본질이 도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것임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결국 王時燕은 하향을 피하기 위해 증명을 위조하고 결혼하여 '黑人' 신분으로 도시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40]

4. 지청과 문혁 극좌파

도시의 이단적 급진 조반파를 지칭하는 극좌파가 지청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문혁시기 예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문혁파는 기본적으로 생산현장인 공장이나 농촌까지 문혁의 혼란이 파급되는 것에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그들은 도시로 귀환한 지청에 대해 농촌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고 앞

亡』香港: 博大出版社, 2006, pp. 145-149 참조.)

40) 王時燕, 「我的知青生涯」, 『無聲的群落(續編)』, pp. 297-300. 문혁 발발 이후 광주 지청은 관을 메고 시위하여 도시 귀환의 권리를 쟁취했고 귀주의 安順 지청은 관리로 위장하여 공사로부터 자신의 호구를 옮겼으며 중경, 성도, 장사 등지의 지청은 도시호구를 획득했다 다시 잃기도 하였다. 이상의 도시귀환 사례와 그에 대한 평가는 鄭鵬 「走出沈寂陰影, 擁包生命的尊嚴」, 『無聲的群衆(續編)』, p. 3 참조.

서 서술하였듯이 도시의 홍위병들도 도시 회귀 투쟁을 벌이는 지청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탐하는 '戶口兵'으로 폄하하였다. 하지만 일군의 극좌파는 지청을 무시하고 비판하며 매수하려는 일반적 경향과 달리 지청운동에 대한 재평가를 강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는 湖南 省無聯의 楊曦光과 武漢 北決揚의 魯禮安이라 할 수 있다.

먼저 楊曦光[41]은 지청의 혁명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청운동의 흥기는 철저한 사회혁명을 예시하며 농민혁명의 위대한 폭풍이다. 지식청년은 그들을 속박하는 모든 굴레를 깨뜨리고 해방의 길을 향해 빠르게 달려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양희광의 평가는 ①문혁 초기 지청의 대자보 투쟁, 반공작조 투쟁, 조반파 형성, ②'1월 혁명' 때의 전국적 조직 성립, ③'2월 鎭反' 때의 '반혁명경제주의'로 진압 당함, ④9월 초 "造戶口反", 劉少奇 반대, 구교육제도 반대 등 호남지청 투쟁사라는 구체적 근거에 의거한 것이었다.

양희광은 이러한 지청운동의 투쟁이 집중적으로 사회주의 성립 이후 17년 간 축적된 중국 사회의 각종 모순을 폭로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더 나아가 지청운동의 흥기는 문혁이 사회의 중상층에서 사회의 저층으로 심화되었음을 보여주며 그리고 확대되어 가는 3대 차별을 없애려는 문혁의 정확한 방향을 가리키는 중요한 지표였다. 따라서 특권계층과 관료기구 및 그 중앙대리인을 상대로 투쟁을 전개하고 있던 극좌파는 이들 지청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철저한 사회변혁만이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지청 역시 극좌파의 동지이자 전우가 되었다. 따라서 양희광은 문혁파가 지

41) 이하, 楊曦光의 주장과 성무련에 대해서는 紅中會長沙一中'奪軍權'一兵, 「長沙知識青年運動考察報告」(1967. 11. 16.); 孫承會, 「호남문혁의 전개와 성무련」, 『민족문화논총』, 제49집, 2012, pp. 195-196; 孫承會, 「문화대혁명 극좌파 사상의 형성」,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3, pp. 231-232 참조. 여기서 楊曦光이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극좌파는 호남의 급진 조반파 조직이며 그 자신이 참여한 紅中會, 高校風雷를 지칭한다.

청운동 역시 극좌사조로 간주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양희광은 양자의 차이를 다음과 이해하였다. 먼저 극좌파를 구성하는 지식분자는 구교육제도의 수혜자로서 지청에 비해 혁명운동의 불철저함과 나약함을 드러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분자 가운데의 극좌파는 노동자·농민 등 사회의 최저층의 절실한 사회혁명적 요구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지청과 결합함으로써 그 지식인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

결국 양희광이 보기에, 사회의 최하층 노동자·농민의 입장에서 지청은 문혁을 이용하여 도시로 돌아와 조반파를 형성했고, 유소기 등을 중심으로 한 특권계층과 기존의 관료기구 및 그 중앙 대리인을 지식인 중심의 극좌파보다 더 철저하게 비판하였다. 이와 같은 그들의 혁명적 철저성은 그들이 곧 반동적 '혈통론'의 희생자였고 또 사회의 최하 계층 빈·하농의 사회혁명적 요구를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사회의 대립면'에 처해있다는 상황에 따른 것이었다. 즉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주의의 기본원리이지만 당시 거의 무시당한 원칙-"모든 혁명의 폭발에는 경제적 원인이 있다. 사람들의 경제적 지위가 개인의 정치적 태도를 결정한다"-에 따른 것이었다. 또한 양희광은 파리코뮌 신봉자였다. 그는 지청운동의 의의를 극좌파의 이상인 파리코뮌과 관련지어 설명하기 위해 먼저 코뮌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1864년 유럽 전체의 군중들 사이에, 운동의 이론 성질이 매우 모호했다. 독일공산주의는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 미국의 工聯 지도자조차 그들이 규약과 장정이 가리키는 바의 강령에 따라 운동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겼다. 첫 번째 큰 성과는 각파의 (이러한) 유치함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 파리공사는 바로 이러한 성과이다.

양희광은 위에서 보여준 파리공사의 역할과 동일하게 지청운동이 문혁을 둘러싼 가짜 혁명과 반혁명의 정체를 폭로하면서 문혁

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했다고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하였다.

양희광만큼 전면적으로 지청의 혁명성을 다룬 것은 아니었지만 무한의 극좌파 가운데 한 명이 魯禮安 역시 농민혁명과 지청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42] 그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던 1967년 말 농민운동과 문혁의 관계는 '결합'이 아닌 '단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농민과 농민운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계기는 호북성 浠水縣 농민에 의한 호북일보사 점령 사건이었다. 시위의 주체는 농민조직 巴河一司였고 그 지도자는 王仁舟라는 인물이었다. 그는 북경외국어학원 학생이었으나 '정치문제'로 제적되어 농촌에 하향된 인물이었다. 이어 문혁 이후 복권되었으나 복학을 거부하고 농민과 함께 조반을 일으켰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건대 그가 문혁 전 하향된 지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왕인주는 노례안보다 급진적이었고 문혁의 주요 역량이며 영도 역량이 학생이나 노동자가 아닌 빈·하·중농이라 주장하였다. 반면 노례안은 단순한 경제적 지위에 의해 계급적 진보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반대하였고 단지 왕인주를 중심으로 한 희수농민운동이 농촌혁명의 폭풍을 예시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극좌파 지식인 노례안보다는 지청 왕인주의 사상이 양희광의 그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왕인주를 추종했던 藺憲生이 省無聯과 양희광을 숭배하였고 오히려 더 급진적이어서 "重建黨, 重建國家, 重建軍隊"를 주장했다는 사실도 이로써 이해될 수 있다.

결국 이상을 통해 왕인주의 영향 아래 지청을 중심으로 한 급진적 문혁 운동이 무한에서 전개되었고 호남에서와 유사하게 도시의 급진 지식인들-극좌파가 이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극좌파의 노력에 대해 지청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는 불분명하다. 자신들에게 동정적이었기 때문에 조

42) 이하, 魯禮安을 중심으로 한 무한 극좌파의 동향에 대해서는 孫承會, 「문화대혁명과 武漢 극좌파」, 『중국학보』 73, 2015 참조.

반파의 일원이 되어 문혁에 적극 참여하였지만 극좌파의 주장과 실천에 동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따라서 도시 귀환 지청과 극좌파의 '단절'을 강조하는 주장이 있다.[43] 그러나 호남의 지청조직 '紅一線'의 마지막 지도자 郭曉鳴이 회고에 따르면 자신이 비록 성무련과 무관하여 성무련비판운동과 탄압이 전개될 때 공안에 의해 체포된 이후 바로 석방되었다고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문혁파는 지청과 극좌파의 밀접한 관련성을 상정하고 있었다.[44]

5. 문혁파의 대응

앞서 지적하였듯이 지청의 도시 귀환과 극좌파와 결합, 그리고 그들을 매개로 한 농촌으로의 문혁 확산은 문혁파의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국적인 극좌파의 등장과 조반파의 전국적 조직 확산에 따라 문혁파의 중요한 방침인 혁명위원회와 군을 통한 문혁의 수습 노력이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1967년 2월 11일 『人民日報』의 사설[45]은 '1월 탈권'을 즈음한 도시 귀환 지청을 겨냥한 것이었다. 사설은 春耕을 앞두고 도시(북경 포함)로 항의 방문한 지청에게 즉시 농촌으로 돌아가 농업생산에 주력하라는 내용이었다. 당 중앙 역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를 발표하였다.[46]

---

43) 向前, 「政治身份體系下的社會衝突: 文革初期群衆行爲的社會根源」, 上海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4, pp. 137-138.

44) 危大蘇, 「血紅的理想之旗-"紅一線"知青回憶實錄」, 『長沙文史-知識青年上山下鄉史料專輯』, 2003. 10, p. 183.

45) 「抓革命・促生産, 打響春耕生産第一炮」, 『人民日報』, 1967. 2. 11.

46) 「中共中央・國務院關于處理下鄉上山知識青年外出串連・請願・上訪的通知」(1967. 2. 17),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建黨史政工教研室, 『"文化大革

1. 아직껏 외지에서 串連, 請願, 上訪을 진행 중인 상산하향 지식청년, 支邊靑年, 농장직공 등 모두는 즉시 본래의 단위로 돌아가 문화대혁명에 참가하고 생산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된 연락소는 모두 철폐한다.
2. 일부 상산하향 지식청년은 자산계급 반동노선과 반혁명 경제주의의 영향을 받아 국가와 인민 이익에 해를 끼치고 있지만, 본래의 단위로 돌아가 진지한 검사를 받고 착오를 시정한다면 다시 그 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3. 외지에서 串連, 請願, 上訪을 진행 중인 상산하향 지식청년, 지변청년, 농장직공 가운데 소수는 행방이 묘연하여 성명과 공작단위를 보고하지 않고 도처에서 협잡질하며 사회치안을 혼란시키니 이들 국가재산을 파괴하는 나쁜 무리는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이상의 통지에서 먼저 1967년 초 상당수의 지식청년, 支邊靑年, 농장직공들이 "串連", "請願", "上訪"을 위해 도시로 몰려들었고 그들이 가운데 일부는 '자산계급 반동노선'과 '반혁명 경제주의'에 영향을 받아 치안을 문란시키며 단위에서 이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47] 또한 일부이기는 하지만 당 중앙은 도시 귀환 지청을 반혁명분자로 간주하며 그들 모두를 다시 농촌으로 하향시켜야 할 문제 집단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지청 대책과 관련하여 1967년 2월 25일 인민해방군 북경시 군사관제위원회는 북경 내의 3개 '반동조직'을 포함한 9개 조직에 대한 단속령을 반포하였다.[48]

命"研究資料』上冊, 北京, 1988, p. 313.

47) 그렇기 때문에 당 중앙은 이전 이미 문혁을 파괴하는 경제주의 경향을 저지하기 위해서 상산하향 지청에 대한 安置工作을 강조하였다.(「中共中央關于反對經濟主義的通知」(1967. 1. 11), 『"文化大革命"研究資料』 上冊, 1988, pp. 245-246.)

48) 「北京市軍事管制委員會負責人談取締一切反動組織」(1967. 2. 25), 『紅衛兵報』, 1967. 2. 27, CCRD 수록 참조.

①全國滅資軍造反團總部
②全國國營農場紅色造反兵團
③全國上山下鄕知識靑年捍衛眞理革命造反團
④全國軍墾戰士革命造反團
⑤國際紅衛兵中國支隊
⑥全國紅色勞動者造反總團('全紅總')
⑦全國上山下鄕知識靑年紅色革命造反團
⑧全國上山下鄕知識靑年紅色第一戰線鬪隊
⑨全國韓人革命造反聯絡總部

이 가운데 당국이 '반동조직'으로 지목한 조직은 ①全國滅資軍造反團總部·②全國國營農場紅色造反兵團·⑥全國紅色勞動者造反總團이었다. 그런데 조직의 이름이 곧 그 조직의 성격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지만, 조직명 하나만으로 그 구성원이 누구인지 또 그 조직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반동조직'으로 지목된 全國國營農場紅色造反兵團은 1960년대 지청의 주요 하향 대상이 국영농장이었음을 고려하면 지청과 밀접히 관련된 조직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비록 직접적으로 '반동조직'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단속과 해산의 대상이 되었던 나머지 6개 조직 가운데 全國上山下鄕知識靑年捍衛眞理革命造反團, 全國軍墾戰士革命造反團, 全國上山下鄕知識靑年紅色革命造反團, 全國上山下鄕知識靑年紅色第一戰線鬪隊 등 4개 조직은 분명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농촌이나 변경지역에 하향된 지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조직일 것이다. 당국에 의해 파악된 이들 조직의 공통적 혐의는 다음과 같았다.

① 이들 조직은 지주, 부농, 반동, 불량분자, 우파, 유맹 그리고 유맹, 임시공, 합동공 가운데 일부 쓰레기로 구성되었다.
② 문화대혁명을 파괴하고 중앙문혁과 모 주석을 공격의 대상으로 하였다.
③ 경제주의를 크게 주장하였다.

④ 군중의 무장투쟁을 선동하였다.

①을 통해 이들 비합법조직이 대부분의 지청을 구성하는 '흑오류'에 더하여 임시공, 합동공 같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차별받았던 새로운 '피압박계급'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문혁 발발 이후 아래로부터의 자율적 혁명성 고양이라는 변화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던 것이었다. 하지만 문혁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곧 문혁을 반대하는 것이고 동시에 모택동에 반대하는 무장 선동이거나 단순한 경제주의의 결과물에 불과하였다. 더욱이 이들 조직은 문혁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위에서 아래로의 구성'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상향식의 자율적 조직이었고 중공중앙은 이미 이러한 전국적 조반 조직 모두를 취소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공안부서에 그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지시한 바 있었다.[49]

1967년 7월『人民日報』등 영향력 있는 대중 매체는 지청의 즉각적 재 하향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50]

> 혁명지식청년의 농촌 귀환은 혁명적 행동이다. 도시의 혁명군중조직과 지식청년의 가족은 마땅히 그들을 지지하여 그들의 신속한 농촌 귀환을 도와야 한다. 광대한 빈·하·중농과 농촌 혁명간부는 열렬하게 그들을 환영하여 생산과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안배해야 한다.

이 언급은 역으로 도시의 조반조직과 도시 귀환 지청이 결합하여 '반혁명' 행동을 일삼을 수 있으며 빈·하·중농 및 농촌혁명

---

49) 「中共中央·國務院關于全國性組織的通告」(1967. 2. 12.); 中發 [67] 47號,『無産階級文化大革命有關文件彙集(第1集)』, 北京, 1967. 2, CCRD 수록 참조.

50) 「堅持知識青年上山下鄕的正確方向」,『人民日報』, 1967. 7. 9. 또한『文滙報』역시 상해 귀환 지청에 대해 재차 변강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였다.(「堅持支內·支疆·支農的革命大方向」,『文滙報』, 1967. 6. 30.)

간부와 지청 사이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또는 보복의 양상을 예상케 한다.

1967년 9월 거듭되는 "串連"·"上訪" 금지는 반드시 지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홍위병의 '대교류'는 여전히 크게 유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9월 8일 북경시혁명위원회와 北京衛戍區司令部까지 나서서 "상방" 인원의 離京을 촉구하였고 10월 8일 중공중앙·국무원·중앙군위·중앙문혁소조는 공동으로 「긴급통지」를 내렸다. 그 내용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51]

① 재하방의 대상에 도시 체류 지청 이외에 支邊人員, 농장직공, 퇴역전사, 精減下放人員[52], 社來社去人員[53], 문혁기 하방된 인원 등이 포함된다.
② 도시에서 조직한 지청의 각종 조직과 연락처를 즉각 취소하였고 도시의 군중조직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지청에게 호구를 제공한 것은 무효이며 소수 불순분자의 혼입을 금지한다.
③ 串連, 上訪을 금지하고 상산하향공작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대해 小字報 또는 大字報를 보내는 방식을 취한다.

이 「긴급통지」를 통해 지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체류 조반파가 지닌 사태의 엄중함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당 중앙 또는 문혁파가 보기에 사태의 심각성은 이들이 도시 내의 조반파와 조직적 결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일부 '불순 세력'과 함께 문혁의 열기를

51) 이를 「'10·8'緊急通知」라 한다. 이 내용은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小組關于下鄉上山的知識青年和其他人員必須堅持在農村抓革命促生産的緊急通知」, CCRD 수록 참조.
52) 1960년대 초 경제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하방된 도시 인구를 가리킨다. 이들은 문혁시기 하방된 지청보다 더욱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는데 문혁 이후 도시로 돌아올 기회를 얻지 못했다.
53) 농촌공사 출신으로 도시 학교 졸업 후 재차 농촌 공사로 돌아온 인원을 가리킨다.

이용한 통제 밖의 상황, 즉 "過火"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에 있었다. 앞서 지적한 도시의 급진조반파, 극좌파와의 결합이 경계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해가 바뀌어 1968년이 되자 문혁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18년 동안 피해를 입었고 박해받았던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분출되었다. 지청과 함께 臨時工, 合同工, 輪換工, 外包工 등은 또다른 새로운 국가의 소수자였다. 하지만 당 중앙 또는 그와 함께 하는 문혁파의 입장에서 이들은 단지 계층적 경제 이익만을 주장하는 '반혁명 경제주의자'였을 뿐이었다. 한 예로 1968년 1월 18일 중공중앙은 다시 한 번 '반혁명 경제주의자'를 공격하였는데 거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지청이 함께 거론되었다. "串連", "上訪"이 금지된 비정규직과 함께 지청은 재하방을 요구받았고, 정규직 전환과 독자 조직화가 거부당한 비정규 노동자와 유사하게 그들 지청은 도시호구 요구를 거부당했다.[54]

지청의 회귀 투쟁이 한창인 상황에서도 상산하향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은 1967년 4월 4일 도시 학교 졸업생의 직업 분배 문제에 관한 원만한 공작을 촉구하면서 모택동의 발언을 인용하였다. "졸업 후의 (직업) 분배는 보편적인 문제로서 대학의 경우뿐만 아니라 중·소학에도 해당된다." 이에 따라 "面向農村", "面向邊疆", "面向工礦", "面向基層"이라는 "4개 面向"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곧 모택동의 권위를 빌어 상산하향을 더욱 강하

54)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關于進一步打擊反革命經濟主義和投機倒把活動的通知」(1968. 1. 19), 『"文化大革命"研究資料』 中冊, 北京, pp.6-8. 또한 이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1967년 1월 11일 통지 이외에도 「中共中央·國務院通知」(1967. 2. 17),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關于下鄉上山的知識青年和其他人員必需堅持在農村抓革命促生産的緊急通知」(1967. 2. 17) 등을 통해 경제주의와 지청의 도시귀환에 대한 당의 반대 입장을 누차 밝혔다.

게 추진하려는 의지의 반영이었다.[55]

물론 이것이 상산하향과 관련된 모택동의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하방의 필요성은 도시 회귀 풍조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었고 당 중앙을 중심으로 한 문혁파는 문혁 전부터 지속되어 온 상산하향운동을 그들의 조반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4·4' 문건 정신에 따라 1968년 10월 중순까지 21개 성, 시, 자치구 혁명위원회는 국무원에 연내에 총 166만 명을 하방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고 그 가운데 이미 701,000명의 하방이 이루어졌다. 이 때 주된 대상은 1966년부터 1968년에 걸쳐 졸업한 도시의 초·중·고 졸업생 400만 명이었다. 흑룡강성혁명위원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 '5·7' 간부학교가 건립되어 간부 자녀의 하향노동을 위한 훈련소가 건립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되었다.[56]

여기서 보이는 하방인수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하방이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1968년 12월 모택동의 결정에 의해 본격적인 하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환언하면 모택동에 의한 홍위병 해산과 상산하향운동으로의 전환이라는 기존의 설명만으로는 1968년부터 본격화된 상산하향운동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1968년 12월 22일 모택동의 하방 지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다. 『인민일보』는 甘肅省 會寧縣 城鎭 주민(지청 포함)의 하방을 높이 평가하면서 모택동의 다음 지시를 높이 선전하였다.[57]

---

55) 「中共中央·國務院·中央軍委·中央文革轉發黑龍江省革命委員會關于大專院校畢業生分配工作報告的批示」(1968. 4. 4), CCRD 수록.

56)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鄕大事記』, pp. 77-79.

57) 「我們也有兩只手, 不在城市里吃閑飯!」, 『人民日報』, 1968. 12. 22.

> 지식청년이 농촌으로 들어가 빈·하·중농의 재교육을 받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도시의 간부와 기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초중·고중·대학 졸업 자녀에게 농촌으로 가도록 동원해야 한다. 각지의 농촌 동지 역시 마땅히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

『인민일보』를 통해 밝혀진 모택동의 이 지시는 북경과 상해에서 수 십만 인파의 환영 시위를 촉발시켰고 이미 추진되고 있던 상산하향운동을 더욱 고양시켰다. 본격적인 하방공작의 지침은 북경혁명위원회에 보낸 국무원의 「통지」를 참조할 만하다.[58]

> ① 간부의 하방 노동의 경우, '5·7'간부학교든 농촌·농장·변강지구로 가든 모두 가족과 함께 가는 것을 허가한다.
> ② 지식청년 및 초·중고 졸업생 가운데 농촌에 직계 친속이 있는 경우 마땅히 그들을 농촌으로 돌려보내 농업생산에 참가시킨다.
> ③ 半工半讀 및 中專學校 졸업생 가운데 상산하향하여 농촌에 정착하기 바라는 자는 마땅히 지지해야 한다.
> ④ 간부와 직공이 농촌·농장에서 정착하기 원하면 주관 부문에서 심사하여 처리한다.
> ⑤ 도시 거주민이 농촌에 정착할 경우 자녀와 함께 原籍으로 돌아가게 한다.

지청 이외에 간부 그리고 도시 거주민까지 동원된 상산하향운동에 가족과 자녀를 포함시킴으로써 정착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방의 인수를 크게 진작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릴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조반의 시기에 좌절되었고 오히려 '返城 풍조'의 고양에 따라 역전되었던 하향은 1968년 후반기 이후 재흥되면서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

58) 「關于知識青年和城鎭居民上山下鄕工作中幾個問題的通知」,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鄕大事記』, pp. 84-85.

6. 결론: 홍위병에서 지청으로

문혁시기 이루어진 상산하향운동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목적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된다. 예컨대 프랑스 학자 Michel Bonnin은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였다.[59] 그에 따르면 문혁기간 동안 농촌으로부터 도시로 유입된 노동자와 하방된 지청 수가 기본적으로 평형을 유지하였다. 그렇다면 도시의 취업문제나 과잉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서의 상산하향운동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운동의 정치적 목적이란 무엇인가? 모택동 등 문혁파의 입장에서 볼 때 '3년 문혁'을 거치면서 한껏 고양된 홍위병의 자율성은 혁명위원회의 성립 이후 수습 과정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더 이상 그대로 방치될 수 없었다. 홍위병에서 지청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문혁의 정치적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서 주목하였듯이 문혁 전에 이미 지청은 존재하였다. 문혁 발발 이후 도시의 홍위병이 모택동을 추종하여 "4舊 타파"와 "奪權 투쟁"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들 지청들은 북경으로 올라가 청원을 하였으며 거리에서 데모를 하며 도시로의 회귀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造反이었지만 동시에 공민의 거주 이전 자유를 보장한 중국 헌법에 근거한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그렇다면 그들의 투쟁은 문혁 조반을 통한 개인 인권의식의 각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문혁파는 그들의 주장을 '반혁명 경제주의'로 강하게 비판하였고 당시 홍위병들까지 이들 지청의 요구에 대해 반대하며 그들을 '戶口兵'이라 부르며 멸시하였다.

---

59) 潘鳴嘯(Michel Bonnin), 『失落的一代: 中國上山下鄉運動 1968-1980』,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0.

반면 도시의 급진 조반파, 즉 극좌파는 이들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지청이야말로 당시 중국에서 가장 고통 받는 하층계층이자 진정한 노동계급이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일부 극좌파 지식인들은 지청이 문혁의 최전선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 기대하였다. 동시에 '黑五類'의 자제로서 하방을 강요받은 지청 역시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불만을 느낀 나머지 극좌파와 쉽게 결합하거나 逍遙派로 전락할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문혁파의 거듭된 재하방 지시와 도시귀환 투쟁에 대한 탄압은 지청과 도시 극좌파 양자의 조직적 결합과 그에 따른 문혁의 급진화를 경계한 결과였다.

이상과 같은 지청의 집단적 행동은 상산하향운동에 대한 지청의 회의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권의식의 초보적 발현으로까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청은 결국 '失落의 세대'이지만 동시에 '자율적 신사조의 세대'로 거듭날 수 있었고 그 계기는 다름 아닌 극좌적 문혁이었다.

참고문헌

Song Yongyi,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Published by Universities Service Centre for China Studies, 2010(Third Edition))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建黨史政工教研室, 『"文化大革命"研究資料』 上冊 中冊, 北京, 1988.

孫承會, 「1960년대 전반 上山下鄕運動의 전개와 그 성격」, 『역사문화연구』 59, 2016.

孫承會, 「湖南文革의 전개와 省無聯」, 『민족문화논총』 49, 2011.

孫承會, 「문화대혁명 극좌파 사상의 형성-湖南 省無聯을 중심으로-」, 『중국근현대사연구』 제57집, 2013.

孫承會, 「문화대혁명의 이단자들-廣東 극좌파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20, 2013.
孫承會,「문화대혁명과 武漢 극좌파」,『중국학보』73, 2015.

中津俊樹, 「中國文化大革命における『極左派』紅衛兵と知識青年運動-「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との關わりに見る “下からの社會再編の試み”-」, 『國際文化研究』第5號, 東北大學國際文化學會, 1998.
顧洪章, 馬克森,『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大事記』, 北京: 中國檢察出版社, 1996.
鄧鵬 主編, 『無聲的群落(續編)-文革前上山下鄉老知青回憶錄』 上・下卷, 重慶: 重慶出版社, 2006.
潘鳴嘯(Michel Bonnin), 『失落的一代: 中國上山下鄉運動 1968-1980』, 北京: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2010.
宋金壽,「延安整風前後的『輕騎隊』墻報」,『新文學史料』, 2000.
劉國凱,『廣州紅旗派的興亡』香港: 博大出版社, 2006.
劉國凱,「論人民文革」,『人民文革論』, 香港: 博大出版社, 2006.
危大蘇,「血紅的理想之旗-“紅一線”知青回憶實錄」,『長沙文史-知識青年上山下鄉史料專輯』, 2003. 10, p. 183.
定宜莊 ,『中國知青史, 初瀾(1953-1968年),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09.
向前,「政治身份體系下的社會衝突: 文革初期群衆行爲的社會根源」, 上海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10.

「上山下鄉文獻及大事記(1967-77年)」(http://www.wengewang.org/read.php?tid=5268&fpage=94, 검색일 2016년 7월 20일 16시)
謝承年, 「湖南道縣“文革”殺人大案揭秘」, 『上海法治報』, 2010.12.24(http://www.difangwenge.org/read.php?tid=8127 검색일 2013.7.1. 14시)

(투고일: 2017. 2. 26 심사완료일: 2017. 4. 4 게재확정일: 2017. 4. 10)

이름: 손승회
소속: 영남대학교 역사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전자우편: sonshoi@ynu.ac.kr

[Abstract]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Return Struggle of the Educated Youths

Son, Seung-hoi

Before the cultural revolution started, there were already the educated youths(知靑) down to rural area from the city. We distinguish this "old educated youths"(老知靑) from those that have emerged in since 1968. They felt that they had been unfairly depressed in accordance with the theory of extreme bloodline. And the poor reality of rural areas also made them more difficult to adapt themselves to the new circumstances.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accept Mao's claim that they could "turn over a new leaf"(換骨奪胎) through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Villages."(上山下鄕運動)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outbreak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confusion of rebel(造反) created a new opportunity for "the old educated youths" to return to the city. However, the clique of the Cultural Revolution (文革派) and general red guards scorned those who returned to the city through rebel as a "hukoubing"(戶口兵) and criticized their argument as "economism." On the other hand, the ultra leftists of Cultural Revolution supported them and focused on combining with "the old educated youths" that formed the lowest society of the time. The ultra leftists of the Cultural Revolution, who was also criticized by the clique of the Cultural Revolution, regarded the combination with the labor people as very important. Although this combination collapsed under the massive criticism by the clique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other awareness of this process created an important opportunity to form the autonomous "new trend of thought" or the another flow of the Cultural Revolution.

Key words : Up to the mountains and down to the villages, The theory of bloodline, The clique of the Cultural Revolution, Hukoubing, The ultra leftists of Cultural Revolution, New trend of thought(新思潮), The educated youth